

말한마디에 웃고 우는 아이

자신감을 주는 말, 상처주는 말

부모넷 www.bomonet.or.kr

왜 교육에 열성을 보이는 가정에서 문제가 나오는 걸까? 아이에게 격려는 악이 되는 경우도 있지만 욕이 되는 경우도 있다. 엄마가 자녀에게 하지 말아야 하는 말에 대해서 알아보자.

》 아이의 마음을 열어주는 대화

아이에게 적극적인 관심이 필요

관심에는 마이너스와 플러스 관심이 있다. 마이너스 관심이란 자신이 없는 부모가 자기 세계를 지키기 위해 아이의 마음에 상처를 입히는 것이다. 공치사라든가, “왜 너는 못 하니” 증후군 등이 여기에 속한다.

아이에게 무관심한 엄마도 많다. 아기가 울고 있는 것을, 탈수기 속의 세탁물이 돌아가는 정도로 생각하는 엄마는 그저 ‘시끄럽다’고 생각한다.

아이와 이런 대화를 하는 엄마도 있다. “차 마시고 싶어요?” “응” “이 사과 먹고 싶어요!” “응” 이런 식의 대화는 엄마 쪽에서 아이와의 관계를 끊고 있다. 자기 아이와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불특정 다수와 이야기하는 것이다.

맞장구치면 아이는 이야기 술술

“과연” “그랬구나” “재미있다” “맞아. 내 생각도 그래” 하는 식으로 중간에 한마디씩 해주는 것이 대

화에서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인식해야 한다. 이런 말로 맞장구를 침으로써 말하는 상대를 자극하여 기쁘게 하고, 더욱 즐겁게 이야기할 수 있도록 유도할 수 있다. 이야기하는 사람은 누구나 상대의 반응을 원하며 맞장구는 상대에게 반응을 보이는 것이다.

》 의욕을 주는 말, 의욕을 꺾는 말

아이의 마음을 자라게 하는 부모의 올바른 태도는 아이가 한일에 고마워할 줄 아는 것이다. 아이가 뽀글을 해냈을 때 “도와줘서 고맙구나” 하는 엄마의 말 한마디는 아이를 만족시킨다. 의욕을 갖게 한다. 집 안일을 돕는 아이에게 “그런 일은 집어치우고 공부나 해라”라고 말한다면 부모가 아이에게 무슨 큰 은혜라도 베풀 듯이 행동하는 것처럼 비쳐 아이의 마음에 상처를 주게 된다.

공치사하는 부모는 자신의 생각대로 아이가 반응하지 않으면 아이를 환자 취급한다. “이 찌개 맛있지 않니?” “어디 아프니” “열 나?” “몸이 안 좋아?” 아이를 이상한 쪽으로 몰고 가며 자신은 정당화 시킨다.

애정이라고 착각하는 격려 방법

애정이라고 착각하는 격려 방법도 문제가 있다. 아이에게 부담을 주는 부모는 아이에게 정신적 압박을 줌으로써 자신의 마음속에 있는 갈등을 해결한다.

그러므로써 부모는 마음의 상처를 치유 받을 수 있다. “너는 바보가 아니야”라고 엄마는 말한다. “너는 할 수 있어”라고도 말한다. 이런 말은 아이에게 심한 정신적 압박을 준다.

그 이유는 엄마가 “너는 바보가 아니야”라고 말하면서 무의식적으로는 아이를 바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열심히!”라는 말 또한 아이에게 격려가 아닌 압박이 되는 것은 엄마가 아이에게 일정한 결과를 기대하기 때문이다. 심각한 열등감의 소유자인 부모는 이런 정신적 압박을 주게 된다.

마음을 비우고 주는 사랑

“만일 당신이 배고픈 개를 잡아 와서 배불리 먹여 행복하게 해주었다면 그 개는 당신을 물지 않는다. 이것이 개와 인간의 근본적인 차이다.” 이는 마크 트웨인의 말이다.

왜 개는 물지 않을까? 개에게 줄 때와 사람에게 줄 때 차이를 생각해보면 주는 쪽의 심리 상태에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다. 개에게 줄 때는 무심히 준다.

개에게 공치사하며 먹이를 주는 사람은 드물다. “너한테 이 음식을 주려고 내가 얼마나 고생했는지 알아?” 하고 개에게 먹이를 주는 사람은 없다. 하지만 사람에게 줄 때는 공치사를 하거나 이해타산을 생각하며 주는 경우가 많다. 사람에게 줄 때는 상대에게 무엇인가를 요구한다.

아마 개에게 줄 때처럼 사람에게도 무심히 준다면 사람도 배신하는 일이 적을 것이다. 개에게 줄 때는 개에게 보답을 바라지 않는다. 개가 맛있게 먹으면 그것으로 만족한다. 개에게 줄 때처럼 사람에게도 마음을 비우고 준다면 주는 사람의 마음이 훨씬 가벼울 것이다.

